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목소리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가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목소리”라는 소식지로 매일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29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의 진솔한 이야기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소식지를 통해 들어보세요.

전 국민이 129를 기억하는 그 날까지!!

보건복지콜센터 직원일동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목소리

C o n t e n t s

1. 상담수기

상담을 한다는 것	이윤진(보건의료정책상담팀)	1
이행급여특례를 소개합니다	정수미(사회복지정책상담팀)	3
추위 속에 피어난 따뜻함	정미희(위기대응상담팀)	5

2. 에세이

이겨낼 수 있는 힘	김민서(저출산고령사회정책상담팀)	7
한결같은 마음으로	김성옥(저출산고령사회정책상담팀)	9

3. 시

외부가격표시	윤지혜(보건의료정책상담팀)	11
--------	----------------	----

4. 보건복지정보

1. 3월부터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확대, Hib 백신 추가	12
2. 3년의 희망키움, 커지는 내일(my job)의 꿈	14
3. 나의 노후준비 수준,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세요	18

5. 129소식

이달의 행사 및 활동	21
상담원 교육 / 우수상담원	22



상담을 한다는 것



이윤진
| 보건의료정책상담팀 |

2013년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없는지, 기존 정책에서 좀 더 확대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전화가 증가하였다. 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어 문의전화가 증가하면 상담원으로서 나는 설렘과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 지원이 확대가 되는 제도라면 설레는 마음으로 들떠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혹시나 내가 잘못 전달하는 내용은 없는지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안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다.

특히, 올 초는 3월부터 시행하는 무상보육 지원으로 인해, 2월 4일부터는 보육료 사전신청이 시작되었고 이에 따른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문의전화가 쇄도하였다. 보육료 지원에 대해 최선을 다해 상담했지만 연일 폭주하는 전화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을 때였다.

‘이번에도 보육료 신청 문의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첫 인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수화기 너머로 중년의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의 예상과는 달리 고객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고객의 상황은 만성질환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을 받다가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가구 소득이 새롭게 반영되면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기준이 초과되어 탈락 된 것이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3월까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조사결과가 반영되면서 1월 말로 자격이 중지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상담원의 입장에서는 선정기준이 초과되어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안내해야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억울한 마음이 이해되어 무척 안타까웠다. 본인은 생활이 더 어렵다고 생각해서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그나마 지원 받고 있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도 탈락되었고, 주민센터와 구청으로 이야기를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안 된다는 것 뿐이라서 보건복지부로 전화를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고객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저 억울한 심정을 이해하고 화를 내는 것을 묵묵히 들어드리고 설명해 드리는 것 뿐이었다. 얼마가 지났을까? 고객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결국, 선생님도 구청과 똑같이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 전화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시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전화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긴 시간 설명하시고 하소연 듣느라 애쓰셨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미처 내가 뭐라고 대답도 하기 전에 전화는 끊겼다.

나는 그렇게 전화가 끊긴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었다. '결국 똑같은 말을 한다!' 는 고객의 말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과연 고객과 상담을 하는 동안 나는 어떤 상담원이었을까?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상담을 한지 어느덧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 질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다. 고객의 마음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나는 그들에게 어떤 상담원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특히, 이렇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내가 ‘좀 더 공감했어야 하는데...’, ‘조금 더 마음의 위로를 해드렸어야 하는데...’ 라고 늘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면 또 힘을 얻기도 한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비일비재 할 것이다. 하지만 곧 다가오는 따스한 봄처럼, 129를 통해 만나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상담원, 따뜻한 상담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이행급여특례를 소개합니다



정수미
| 사회복지정책상담팀 |

어느덧 2013년도 벌써 2월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콜센터의 새해는 늘 다양한 사업의 제·개정으로 분주하지만 그 중 올해 단연 눈에 띄는 반가운 소식은 이행급여 특례의 적용범위 확대였다.

다소 생소한 이름의 이행급여 특례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를 초과하지만 15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최대 2년간 특례수급자 자격으로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대상이 희망키움통장, 희망리본프로젝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등으로 인한 탈수급가구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모든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확대가 된 것이다.

취업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증가로 수급자격 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본적인 급여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각종 혜택(국가장학금, 정부양곡, 이동통신 요금 할인, 전기·도시가스 할인 등)이 모두 중지되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수급을 주저하던 수급권자에게 이행급여 특례의 확대는 더욱 반가운 소식일 것이며 정부가 지향하는 일하는 복지에 부합하는 개정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가정폭력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금년 고등학생 3학년에 진학하는 자녀와 2인가구로 생활하는 여성고객과 통화를 했었다. 고객은 고학력자로 한때는 대학 강단에서 시간강

사로 강의를 하던 교수였는데 원치 않는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대학교 시간강사 일자리를 제안 받게 되었다고 했다.

2인 가구 최저생계비 97.4만원,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은 126만원으로, 만약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 170만원 남짓 월급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경우 각종 혜택이 중지되기 때문에 내년 대학진학을 앞둔 자녀의 등록금 부담이 크다고 했다. 그래서 취업을 하지 않고 수급자격을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다시 찾아온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이런 좋은 기회를 포기하려는 고객의 상황이 무척 안타까워 이행급여 특례가 올해부터 확대되어 선정 기준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향후 최대 2년간은 수급자격 유지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드렸다.

본인이 고민하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정보와 희망을 안고 다시 주민센터로 상담을 받아보겠다고 한결 밝아진 목소리로 상담이 종료되어 뿌듯함과 동시에 안도감이 생겼다. 더불어 업무에 있어서 고객에게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지식을 쌓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능력을 길러야겠다는 다짐을 한 번 더 하게 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 중의 하나인 All or Nothing 급여방식의 개편이 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라고 한다. 앞으로 빈곤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기를 주저하는 이들에게 더욱 힘이 될 수 있는 평생친구로서의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

추위 속에 피어나는 따뜻함



정 미 희
| 위기대응상담팀 |

며칠 전만 해도 추운 날씨로 인해 두꺼운 옷을 잔뜩 껴입고 다녔지만, 어느새 따뜻해진 날씨는 소리없이 우리들 곁으로 다가와 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녹이는 따뜻한 봄바람에 문득 지난겨울에 겪었던 가슴 따뜻한 사연을 생각나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이런 곳에 연락해도 되는지... TV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연락하는 자막을 보고 연락했는데요.”

작년 겨울, 보건복지부에서는 폭설, 한파 시 보호가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홍보를 하고 있었다. 아마도 TV방송을 보고 전화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세요. 어떤 상황인지 여쭙봐도 괜찮겠습니까?”

조금은 긴장한 목소리의 중년 여성은 동네에서 통장을 맡고 있다며 간단한 소개와 함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2년 전부터 밭길이 끊긴 시장 모퉁이에 위치한 쓰러져가는 가게에서 난방도 하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이 주는 음식으로 생활을 이어나가는 70대의 할머니가 안쓰러워서 연락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할머니가 걱정이 되서 시장에 나가봤는데 이 추운 날에 얇은 이불을 덮고 누가 언제 쫓는지도 모르는 땡땡 얼어버린 만두를 드시고 있더라고요. 제가 매일 시장을 가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동네사람들도 할머니 걱정이 많아요.”

깊은 한숨 속에 진심으로 할머니를 걱정하는 고객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연락이 닿는 자식들이나 친척도 없어서 동사무소로 몇 번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상담을 했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서 저렇게 추운 냉골에서 연탄만 피우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고객님께서 어르신이 많이 걱정되셔서 연락을 주셨군요. 우선, 주위에 관심을 갖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인사를 전한 후 어르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여쭙보았고,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어르신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민생이관 접수를 도와드렸다. 또한 앞으로도 주변의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129번으로 연락 주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난 다른 건 없어요. 우리 동네에 굶지 않고, 추운 곳에서 자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가씨도 새해 복 많이 받고 항상 밥 든든히 챙겨 먹어요.”

따뜻한 인사말과 함께 고객과의 상담을 종료하였습니다.

2013년 새해를 맞이하여 누구나 한두 가지씩 새해 소망을 다짐 하셨을 텐데요. 우리도 거창한 소망 보다는 주위를 조금 더 돌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난방을, 얼어버린 만두 대신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날씨만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온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



김민서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상담팀 |

보건복지콜센터에 입사한지도 만 3년이 조금 넘었다. 입사 초창기 때만해도 어떻게 상담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허둥대기만 했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3년 동안 변화하는 제도의 흐름을 보게 되고, 수많은 상담을 해왔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매년 초에는 제도의 제정 및 개정으로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쉴 새 없는 문의전화와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업무교육은 3년 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나에게겐 어려운 과제이다.

상담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곤 한다. 하루에도 열두 번씩 얼굴이 붉어지며 속을 태우기도 하고 고객의 사연에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그리고 가끔은 안타까운 사연에 직접 도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고객의 따뜻한 한마디 ‘정말 감사합니다.’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 된다.

몇 일전 한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데요... 동사무소에 가도 본인이 담당이 아니라고 잘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어디로 물어봐야할지 몰라 전화 드렸어요.”

본인은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의 대한 문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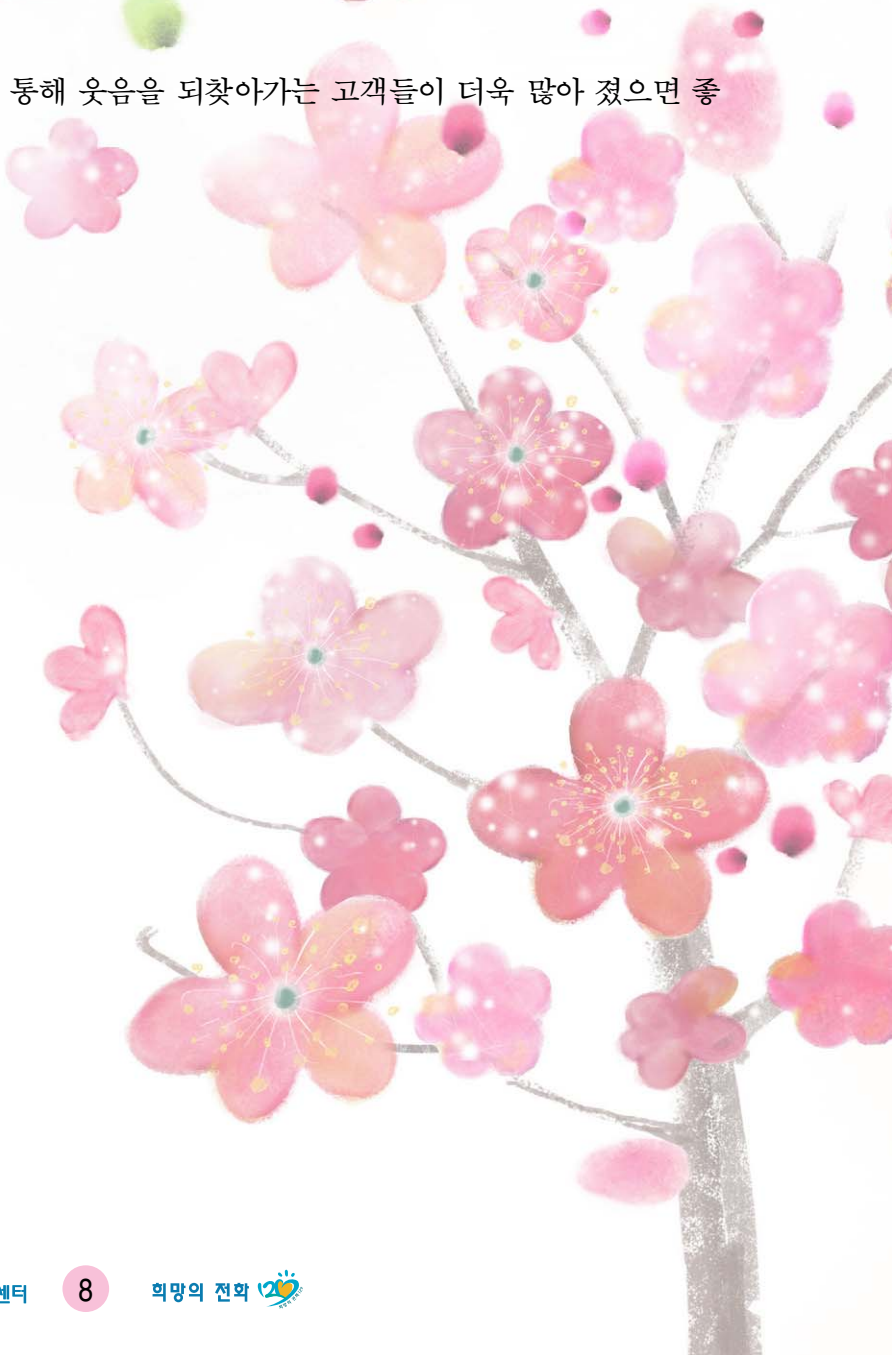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만으로 모든 사실을 갈음할 수는 없지만 꽤 젊은 엄마였던 것 같고 어린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어렵게 이곳에 전화를 해주셨으리라 생각되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원제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고,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들도 있으므로 알아보시도록 안내 해드렸다. 이런 나의 마음이 고객에게 전해졌는지, 고객은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알려줘서 고맙다며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셨다.

보건복지부 콜센터라는 곳이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이러한 설명만으로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는 분이 있기에 상담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아마 내가 상담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가끔은 상담원의 진심을 알아주고 고마워하는 가슴 따뜻한 고객들이 계시기 때문인 것 같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나 또한 고객 한 분 한 분께 진심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2013년 한해는 129를 통해 웃음을 되찾아가는 고객들이 더욱 많아 졌으면 좋겠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김성옥
| 보건의료정책상담팀 |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첫 운전을 시작하고 사고를 가장 많이 낼 때가 1년 정도 됐을 때’ 라고 한다. 어느덧 입사를 한 지 일 년 반이 지났다. 요즘 출근하면서 ‘오늘을 제~발...’ 이라는 주문을 외운다. 내가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이유는 스스로를 반성할 일이 최근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서다. 상담이 매끄럽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자칫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3월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 지원을 하게 되면서 2월부터 보건복지콜센터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교육비지원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서 많은 이용자들이 인해서 홈페이지가 폭주하기도 했다. 또한 많은 문의전화로 인해 콜센터의 전화 연결이 어렵다는 불편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셨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교육비 신청을 하는데 컴퓨터를 잘 몰라서 전화를 했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고객이 계셨다. 맨 처음 신청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안내를 하는 내내 고객은 나에게 ‘죄송해요. 컴퓨터를 잘 몰라서요.’ 라는 말을 열 번 정도 반복한 것 같았다. 상담이 종료될 때 고객은 나에게 또다시 ‘감사하다’ 며 인사를 건넨 후 전화를 끊었다. 고객의 몇 번이나 죄송하다는 말에 오히려 내가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나의 음성에서 바쁜 마음이 고객에게 전달이 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상담을 예약하신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내 스스로 위안을 해보지만 왠지 나의 속마음이 들켜버린 것 같아 부끄러웠다.

온라인 신청에 대한 많은 문의전화로 인해 '129콜센터는 왜 이렇게 전화통화 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불편을 토로하는 고객도 계셨다. 처음부터 불만을 호소하는 고객의 전화에 나 또한 고객의 마음을 상처를 준적도 있을 것이다. 나라도 몇 십분 쯤 전화기를 붙잡고 겨우 연결된 전화라면 충분이 그랬을 것이다. 이런 점을 이해하고 고객의 마음을 다독여 주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보건복지콜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의 계층은 다양하다. 단순한 문의나 따뜻한 마음씨의 고객뿐만 아니라 불만을 토로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고객들이 계신다. 나의 기분에 따라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고객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상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진정한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아닌가!

첫 운전을 시작하고 1년 정도 됐다고 해서 모든 이가 사고를 내지는 않는다. 부디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상담에 임해야겠다.

외부 가격 표시



윤지혜
| 보건의료정책상담팀 |

외부에 가격이 표시된 이·미용실이나, 음식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1월 31일

부터 이·미용실은 20평 이상, 휴게·일반음식점은 45평 이상일 경우 소비자가 외부에서 최종 지불가격을 미리 확인 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습니다!!
(단, 음식점은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가격을 모르고 들어가서 당황스러우신 적 많으셨죠?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격노할 일 없고, 당황할 일 없습니다.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이용업소 3개 이상, 미용업소 5개 이상, 휴게·일반음식점 주 메뉴 5개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단계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쁘게 봐주세요 ~ ^ ^

3월부터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확대, Hib백신 추가

- 정부지원 확대 1년, 보호자 10명중 7명“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육아부담 감소했다” -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3월부터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는 소아에 발병시 뇌수막염, 폐렴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남기는 감염병으로 영유아 시기에 받는 예방접종이 유일한 예방법이다.

○ 그동안 Hib 백신은 예방접종비용을 보호자가 전액부담 해야 했지만, 3월부터 정기예방접종에 포함돼 정부지원(백신비+접종시행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Hib 백신은 관할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무료접종이 가능하며,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1회 접종에 5천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 자치단체에 따라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일부지역은 무료접종 가능하므로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확인

※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및 접종 가능한 백신을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확인 후 방문

○ 아울러, 3월부터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가 추가 지원되면 민간의료기관 이용시 정부 지원혜택을 받는 백신은 11가지로 늘어난다.

- 정부는 동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예방접종 실효성을 높이고, 보호자의 접종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백신 2종(접종횟수를 줄여주는 DTaP-IPV 콤보백신('11.10월), Tdap백신('12.1월))을 도입한 바 있다.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을 5천원으로 낮추는 지원사업 시행 1년을 맞아 보호자 만족도를 실시하였다 .

※ 1세 이하 영아 보호자 1,700명 전화설문('13.1.17~2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4%p

○ 조사 결과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해 보호자의 90.1%(1,531명)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매우만족 13.0%, 만족 43.9% 보통 33.2%, 조금불만족 8.3%, 매우불만족1.6%

- 만족하는 이유로는 '접종기관 접근성 향상(89.8%)' 과 '접종시간이 편리해(85.3%)' 진 점을 꼽았고, 정부의 접종비 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이 감소' 되었다고 응답한 보호자는 전체 73.6%(1,252명)로 나타났다.
- 추가로 설문에 참여한 보호자 대부분은(97.9%) 앞으로 예방접종 지원항목이 더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 ※우선지원 요구 순위 : 폐렴구균, 로타바이러스, 인플루엔자, A형간염,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 예방접종에 대한 사전안내와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97.4%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정보제공 방법으로는 68.7%가 핸드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 목 표

- 아동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아동과 보호자가 더 편리하게, 비용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예방접종률을 퇴치수준(95%이상)으로 향상

♣ 사업개요

- 사업대상인구 :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원내용 : 국가필수예방접종(11종 백신)의 지정의료기관 접종비용 지원
 - ※ 매 접종시 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 중 일부 지원(본인부담금 5천원 이하)
 - ※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예방접종 시행비용 추가 지원으로 무료접종 가능(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관할 보건소로 문의)
 - ※ 시·군·구청, 보건소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지정 의료기관 검색 가능

○ 지원백신 : '12년 10종 → '13년 11종

※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은 '13년 3월부터 지원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예방접종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음

※ 보건소에서 실시되는 필수예방접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접종 시행됨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보도자료 참고

3년의 희망키움, 커지는 내 일(my job)의 꿈

- 2013년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 시작 -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2013년도 신규 대상자 모집을 시작했다.

○ 올해는 대상 가구를 대폭 늘려, 전국 17개 시도에서 3.4만 가구(희망키움통장 1.4만, 내일키움통장 2만)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 (희망키움통장) 1만('10년)→1.5만('11년)→1.8만('12년)→3.2만 가구('13년, 신규 1.4만)
(내일키움통장) 2만명('13년, 신규)

** 1차 모집 : 2.25(월) ~ 3.8(금), '13년 총 8회 모집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 희망키움통장은 열심히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 가입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수급 상태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최대 5배를 적립하여 2,4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3인 가구 기준)

* (본인)월 10만원 + (정부)월 43만원 + (민간)월 10만원 = 3년간 약 2,400만원

○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약 1.8만 가구가 가입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 정부는 대상자에게 상담, 재무교육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탈수급 시에도 2년간 교육·의료급여를 지원한다.

♣ 한편, 민간 기업들도 저소득층의 희망키움에 동참하고 있다.

○ 복지부는 지난해 말 하나은행과 100억원의 희망키움통장 민간매칭금 후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민간매칭금 후원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지정기탁을 신청할 수 있다.

- ♣ 희망키움통장은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의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 가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내일키움통장’에 가입〉

- ♣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활 근로사업단의 수익금 등을 활용하여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 참여자에게는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하여, 3년 이내 취·창업시 최대 1,300만원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소속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이란?

♣ 개요

- (의의)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는 자산형성지원 제도*('10.4월~)
- (지원현황) 1.8만 가구 ('10년 1만, '11년 5천, '12년 3천가구)
 - * (가입대상)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가구
 - ** ('13년도) 1.4만 가구 신규 모집 예정('13.2~10월)

♣ 세부 사업내용

- (지원내용) 일하는 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때,
 - 정부지원금 월 평균 25만원, 민간 매칭금 월 10만원(1:1 매칭 지원)으로 3년 만기 탈수급시 3인 가구 최대 2,400만원(평균 1,700만원) 적립
- (지원조건) 3년 이내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용도제한

♣ 기타 지원

- (이행급여 지급) 희망키움통장 탈수급 시 의료·교육 급여를 한시적(2년)으로 지급하여 실질적 자립·자활 지원
- (자립역량 강화) 일자리 지원, 금융교육 실시,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빈곤 재진입을 방지



내일키움통장이란?

♣ 개요

- (의의) 근로빈곤층에게 탈수급 인센티브를 확대하되, 지원 방식은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산형성지원 사업 확대·개선 추진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내일키움통장」 도입('13년~)
 - * 자활장려금을 받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희망키움통장 가입 제한
- (모집규모) 20천명('13.2~10월)
 - * (가입대상)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에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

♣ 세부 사업내용

- (지원내용)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매월 5, 10만원(선택)을 저축하고 성실하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 내일키움장려금 월 10만원, 내일키움수익금 월 15만원으로, 3년 만기 취업 시 최대 1,300만원(평균 1,100만원) 적립(시장진입형 참여자 기준)
- (지원조건) 3년 이내 일반시장 취·창업하고, 소정의 교육 이수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용도제한

♣ 기타 지원

- (이행급여 지급) 내일키움통장 탈수급 시 의료·교육 급여를 한시적(2년)으로 지급하여 실질적 자립·자활 지원
 - 내일키움통장 지원 후 희망키움통장 가입 요건 충족시 우선 가입 가능
- (자립역량 강화) 일자리 지원, 금융교육 실시,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수급자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빈곤 재진입을 방지

▶ 자산형성지원 사업(희망·내일키움통장) 주요 내용 비교 ◀

구 분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대상	일반노동시장 취·창업자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3개월 성실 참여자)
월 본인저축액	10만원	5만원 또는 10만원(선택)
정부 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월 평균 25만원) * 근로소득에 따라 변경	내일키움장려금 본인저축액 1:1(시장진입형), 1:0.5(사회서비스형) 매칭 지원
추가 지원액	민간매칭금 10만원 (기부조성액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내일키움수익금 등 (월 평균 8만원)
지원 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등으로 취·창업 및 교육 이수 조건
실질 혜택	(3년, 3인 가구 기준) 평균 1,700만원(최대 2,40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1,100만원(최대 1,300만원) 적립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보도자료 참고

나의 노후준비 수준은 몇 점? 스마트폰 앱 속으로!

- 「노후준비지표」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및 진단지 보급 -

- ♣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과 전체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노후준비방법을 알려주는 노후준비지표 앱 서비스를 2월 8일 시작했다.
- ♣ 노후준비지표 앱은 민관합동으로 개발한 노후준비지표를 활용하여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을 간편하게 진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결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전 국민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과 상대적 위치를 영역별·연령별·성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 * 총 노후준비 수준을 기준으로 65.1점 이상이면 준비도가 높은 집단(상), 65~46.6점이면 준비도가 보통(중), 46.5점이면 준비도가 낮은 집단(하)이며, 세부 영역별로 상중하 기준 존재
 - 또한, 대인관계·건강·재무·여가 영역별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유형과 이에 대한 간단한 노후준비방법을 제공한다.
 - 노후준비지표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용 2종류로 제공되며, 관련 앱스토어에서 '노후준비지표'로 검색하여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 노후준비지표 진단지는 주요 등산지 매표소, 백화점 문화센터, 은행·보험사 창구, KTX 열차 내 등에 비치될 계획이다.
-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후준비지표 앱과 진단지로 청년층부터 노년층에 이르는 전 국민이 손쉽게 노후준비수준을 확인하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개발하였다”고 말했다.
- ♣ 또한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지표를 활용한 진단 이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동일한 노후준비 수준이라도 생애주기와 성별에 따라 노후준비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생애주기별·성별 노후준비방법을 올해 마련하고, 서비스 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이동식 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노후설계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보도자료 참고

「노후준비지표」스마트폰 앱 이미지

어플리케이션 초기 화면



어플리케이션 주 메뉴



☞ 4개의 영역을 사용자가 손쉽게 선택하여 설문, 1문1답 형태로 진행

☞ 영역별 결과유형을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일러스트 형태로 제공

「노후준비지표」진단지 이미지

진단지 앞면

사회적 관계 수준선
노후에 지출을 늘리는 경우, 저가 및 저소득 계층 1차 사회적 관계망에 접근 가능 여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노후에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경제, 의료, 교육,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노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 수준선
노후에 지출을 늘리는 경우, 저가 및 저소득 계층 1차 사회적 관계망에 접근 가능 여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은 노후에 지출을 늘리는 경우, 저가 및 저소득 계층 1차 사회적 관계망에 접근 가능 여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수준선
노후에 지출을 늘리는 경우, 저가 및 저소득 계층 1차 사회적 관계망에 접근 가능 여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수준은 노후에 지출을 늘리는 경우, 저가 및 저소득 계층 1차 사회적 관계망에 접근 가능 여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가 활동 수준선
노후에 지출을 늘리는 경우, 저가 및 저소득 계층 1차 사회적 관계망에 접근 가능 여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가 활동은 노후에 지출을 늘리는 경우, 저가 및 저소득 계층 1차 사회적 관계망에 접근 가능 여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 지표를 알면 행복한 노후가 보입니다
노후준비 지표를 알면 행복한 노후가 보입니다. 노후준비 지표를 알면 행복한 노후가 보입니다. 노후준비 지표를 알면 행복한 노후가 보입니다.

진단지 설명서
진단지 설명서

진단지 뒷면

노후준비지표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연구원 과업시스템 대비하여 노후준비지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노후준비지표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노후준비지표는 사회적 관계, 건강, 소득과 자산, 여가활동 등 4개 영역을 20개 지표로 구성하여 있으며, 사회적 관계 특권 연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으로 보완되었습니다. 노후준비지표는 국민연금연구원 과업시스템 대비하여 노후준비지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노후준비지표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노후준비지표는 사회적 관계, 건강, 소득과 자산, 여가활동 등 4개 영역을 20개 지표로 구성하여 있으며, 사회적 관계 특권 연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으로 보완되었습니다.

노후준비지표 구성
1. 사회적 관계
2. 건강 영역
3. 재무 영역
4. 여가 영역
5. 노후준비지표 구성

사회적 관계 영역 지표
1. 사회적 관계
2. 건강 영역
3. 재무 영역
4. 여가 영역
5. 노후준비지표 구성

건강 영역 지표
1. 건강 영역
2. 재무 영역
3. 여가 영역
4. 노후준비지표 구성

재무 영역 지표
1. 재무 영역
2. 여가 영역
3. 노후준비지표 구성

여가 영역 지표
1. 여가 영역
2. 노후준비지표 구성

한데 여가생활의 특장점
한데 여가생활의 특장점

각종 행사 및 활동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 교육-1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 교육-2



상담원 교육

일 자	교육내용	대상
2.1	2013년 우선돌봄차상위가구 지원사업 개정사항	사회복지정책상담팀 등 50명
2.4	장애인 등록	사회복지정책상담팀 32명
2.7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	사회복지정책상담팀 28명
2.13~14	초중고 교육비 온라인 신청	전체상담원
2.18	요양보호사 자격 및 장기요양급여	보건의료정책상담팀 20명
2.20, 25	2013년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정책상담팀 등 47명
2.22	201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복지정책상담팀 30명
2.26	기본보육료	저출산고령사회정책상담팀 29명

우수 상담원

BEST 상담원

이체빈 (보건의료정책상담팀)
 권희정 (사회복지정책상담팀)
 조은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상담팀)
 김빛나 (위기대응상담팀)

JUMP UP

옥지혜 (보건의료정책상담팀)
 손지현 (사회복지정책상담팀)
 김보경 (저출산고령사회정책상담팀)
 이수연 (위기대응상담팀)

129 기네스

상담건수 최다 : 조수진 (보건의료정책상담팀)
 상담시간 최장 : 조정은 (사회복지정책상담팀)



